

산란피크는 높고, 지속성이 길어진다



이 동 명
덕일농장 부사장

모든 생물은 전성기가 지나면 노쇠기가 오게 된다.

계속 전성기를 유지만 하다 죽는다든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내리막길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산란 peak 라든지 정점이라는 낱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닭의 산란피크는 높고 지속성이 길어질수록 산란지수는 높은 결과가 되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줄까 생각해 보자.

1. 산란 준비과정

닭의 산란 준비과정은 넓은 의미로는 육성기 전체를 말한다.

이렇듯 닭의 산란율은 육성기에 이미 결정되므로 육성과정은 참으로 중요 하다 하겠다.

산란피크를 높고 오래도록 유지하자면 육성이 잘 된 닭이라야 가능하다.

즉 기초가 잘 되어야 그 본체가 완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① 균일한 육성

닭 한마리가 산란을 하면 산란피크시 산란율 100%이다.

계군이 한 마리 같으면 가장 이상적인 산란피크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에 가장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 산란피크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성이 균일해야 한다. 일시에 초산을 시작해 주어야 산란피크를 향해 올라가는 산란곡선이 수직을 이루고 산란피크가 높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료관리를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란지속성이 또한 길 수 있다.

육성시 균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급여량을 전군이 똑같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사료를 먹는 닭이 많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약추 관리를 별도로 해서 약추는 1일 10g 정도의 사료를 더 주어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약추와 계속 바꾸어 반복해서 교체시키다 보면 전군이

균일하게 클 수가 있다.

② 적당한 골격

과거의 닭의 육성과정에서 체중에만 기준을 두던 관념에서 골격의 크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장 과학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

체중은 늘었다 줄었다 변할 수 있으므로 또 산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골격에 못미친다.

나이를 더 먹어도 사료량을 줄이면 체중은 감소하는데,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그 닭이 어려졌다고 할 수 있는가?

성성숙이 늦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닭에 있어 한번 큰 뼈대는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 뼈대의 크기가 적당히 갖추어져야 적당한 사료를 섭취하고 알 크기가 크며 지속성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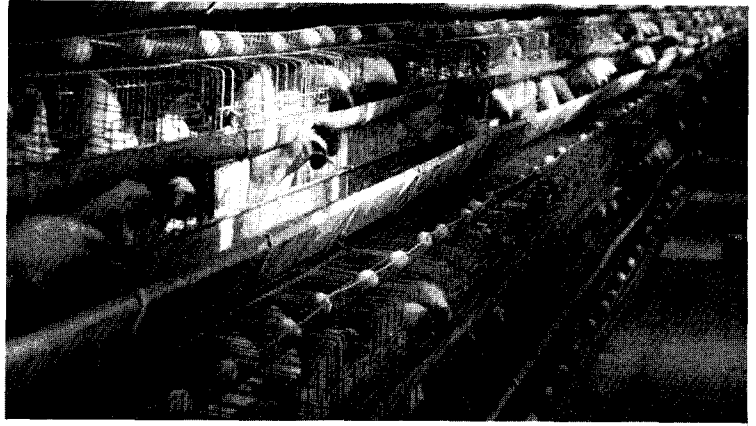
즉 산란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닭의 체형에 따라 좌우된다.

이 중요한 골격의 성장은 13주령까지로 성계 골격의 95%가 다 커 버린다.

다시 말해서 13주령이 넘어서는 닭의 골격을 크게 키우려 해도 이미 클 수가 없는 나이이므로 어려서 클 수 있는 나이에 키워야 한다.

조기 발육이 중요하다.

조기에 클 수 있는 나이에 필요한 만큼 키워 놓으면, 한번 큰 골격은 줄지 않기 때문에 사료량



약추는 별도로 관리한다. 약추는 1일 10g 정도의 사료를 더 주어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약추와 계속 반복해서 교체시키다 보면 전군이 균일하게 클 수가 있다.

과거 닭의 육성기를 체중에만 기준을 두던 개념에서 골격의 크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을 제한해서 탈홍을 방지하고 성성숙을 점등으로 조절하면 좋은 초산계가 될 수 있다.

단백질이 부족한 어린 병아리 사료는 사료량에 관계없이 골격을 이상적으로 발육시킬 수 없다.

산란용 육성계의 어린 병아리 사료는 단백질 21% 이상 사료를 7주령까지 주고, 중추사료 단백질 16% 이상 사료를 13주령까지 주어야 바라는 크기의 골격을 형성시킬 수가 있다.

육성계에서 골격이 제대로 컸고 성성숙이 점감 점등에 의해서 조숙되지 않고 완벽한 방역에 의해서 건강하게 육성되었다면 산란피크가 높고 오래 유지해 줄 수 있는 산란준비가 완벽하게 된 좋은 병아리라 생각된다.

③ 육성기의 성성숙(점등 프로그램)

육성기의 점등 원칙은 점등시간을 늘려서는 안된다.

즉 성성숙을 촉진시켜서는 안 된다.

조숙은 사료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산란피크가 낮고 오래 지속을 못 해주고 난중이 잘고 탈홍이 많으며 후반기 산란지속이 나쁘다.

성성숙은 점등에 의해서 좌우되고 점등은 켜 주는 시간보다는 점등시간의 변하는 과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점등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면 성성숙이 촉진되고 점등시간이 줄어 들면 성성숙이 지연 된다.

육성시기가 하지를 지나 동지를 향하고 있으면 자연 일조시간이 점점점등 효과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공점등이 필요없이 자연 일조시간에 그대로 맡겨 놓고 육성시기가 하지를 향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있으면 인위적으로 차광막 등을 이용하여 일조량을 조절하는 점감점등을 해

야 한다.

이때 초산시 일조시간에 1주일에 15분씩 역으로 계산해서 합산한 후 1주일에 15분씩 점감 점등을 하다 보면 예정 초산시에 점등시간은 자연일조시간과 같게 되고 여기서 다시 점증점등으로 초산을 유도해야 한다.

④ 산란 전 사료

이론적으로 초산 1,2주령 전에 닭의 생체는 산란 준비과정으로 많은 발육과 많은 영양이 필요하다.

간장, 난소, 수란관 등 보통보다 2배의 빠른 속도로 발육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료를 급여해야 되고 그 사료를 산란 전 사료라 한다.

조단백 17~18%, 칼슘2% 정도의 산란 초기 사료 보다도 단백질은 높고 칼슘은 낮은 사료를

산란 1~2주전부터 초산 5%까지 주라고 권장하고 있다.

2. 산란과정

① 사료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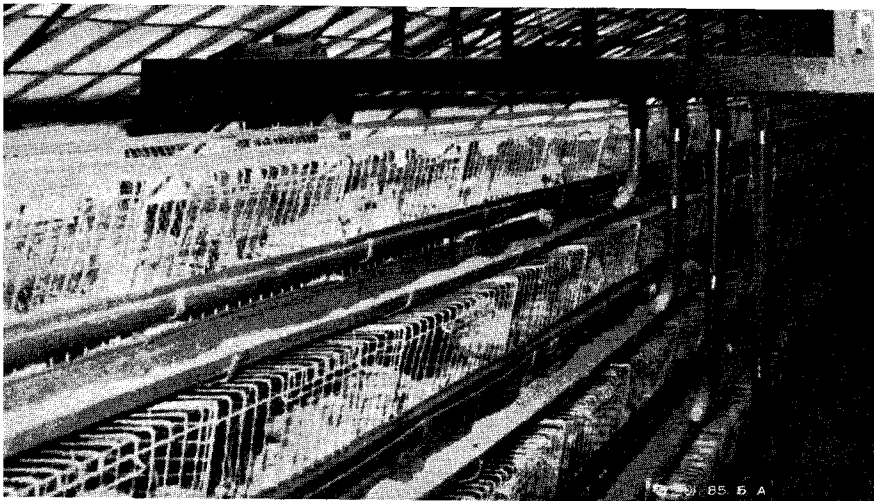
산란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사료를 많은 양을 급여하면 탈홍, 식욕감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란을 상승에 맞춰 서서히 사료량을 늘려 주어야 한다.

산란피크시 유의할 점은 충분한 영양이다. 많은 양의 산란을 위해서 영양이 모자라면 피크가 높게 올라가기 어렵고 지속성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란율에 따라 백색계의 경우 1일 수당 단백질 필요량은 산란율 85% 이상시 18g 이상, 산란율 80% 이상시 16g 이상, 80% 이하시 15g 이상, 피크시 19g 이상 섭취해야 한다.

갈색계는 이보다 1~2g 높여야 할 것이다. 만약 피크시 여름철이 되어 사료섭취량이 적을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단백질이 섭취되도록 조단백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야 바라는 산란피크를 올릴 수가 있고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산란피크에 20g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현재 섭취하는 사료량이 110g일 경우 $20 \div 110g = 18.18\%$ 의 단백질함량의 사료를 급여해야 20g의 단백을 급여하는 결과가 나온다.



② 환기

신선한 공기는 산란율과 직접 관계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계사에서 여름철에는 환풍기, 닥트 바람구멍을 직접 닫아 주어 시원한 효과를 주고 계사폭이 넓은 경우 입기 닥트를 보조로 더 설치하여 최대의 공기유통 효과를 거두자.

더운 여름철 사료섭취량이 떨어져 산란피크에 못올라가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③ 사료변질 방지

사료통에 사료가 남아서는 안 된다.

새벽에 첫 사료 주는 시간을 기준으로 케이지 사료통 속에 사료의 과부족이 없게 사료량을 조절한다.

남은 사료는 습한 조건, 고온에서 변질되고 닭의 식욕을 감퇴시키므로 사료관리를 잘 해주면 산란율에 직접 관계된다.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은 줄이라도 부

분적으로 사료섭취량의 차이, 닭이 빠져 있는 상태 등으로 인해서 사료가 많고 적은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통을 들고 다니며 많은 부분의 사료를 떠서 적은 부분으로 재분배를 해야 한다.

습기가 있는 사료는 끊어주어 먹도록 하거나 걸어 내어서 변질된 사료를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양희**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 센터 설치

■ **설치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전화 : (02) 588-7651 (대)
FAX : (02) 588-7655

■ **설치기간** : 1989년 4월 15일~12월 31일

■ **고발접수대상** : ○ 무허가로 부화장을 경영하는자
○ 미등록으로 종계장을 경영하는자
○ 미검정종계 유효기간이 초과된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자
○ 불량종란(축산법에 의한 검정을 받지않은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 또는 불량 초생추(축산법에 의한 계통보증서가 없는 병아리)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자

■ **고발방법** : ○ 고발접수 대상을 알고 있는자 또는 단체에서는 위법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집약하여(예 : 대상자·장소·위법내용·위법기간·사업규모등) 서면 또는 전화로 고발한다.

○ 고발자의 신분은 밝힐 필요는 없으나 고발내용의 신빙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신분을 밝혀주기 바람에 고발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로 할 것임

■ **조 치** : ○ 고발이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실 확인을 한후(청문 또는 현지조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당국에 고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조치결과는 월간양계지를 비롯한 양계관련 신문잡지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기명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는 고발자에게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회 지도조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람.